

 교육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 <p>2021. 12. 23.(목) 배포</p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국립대학병원지원팀	담당자	팀 장 사무관	박창원 (☎ 044-203-6020) 전형은 (☎ 044-203-6826)	

코로나19 병상확보 관련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결과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23일(목)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, 국립대병원장 10명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중증환자 치료병상 추가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.
- 이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현재 운영 중인 중증환자 병상 485개 이외에 추가적으로 서울대병원 94개, 경북대병원 56개, 부산대병원 56개, 충남대병원 37개, 전북대병원 32개 등 중증환자 치료병상 약 350여개를 1월 중순까지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또한 여기에 더해 국립대병원장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도 모색 중에 있는 바, 서울대병원은 모듈형 병상을 구축하여 중증환자 병상 96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였다.
- 국립대병원장들은 개별병원의 상황에 맞게 우선적으로 자체재원과 정부의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시설, 장비 및 인력 확보를 해 나갈 것이고, 유은혜 부총리와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국립대병원들이 추가 확보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지원, 추가 예산 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 국립대병원장들은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확충 및 지역 내 중증 환자 치료 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나서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.”라고 하면서,
 - “이제 국립대병원장들이 선제적으로 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 주신 만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.”라고 말하였다.
 - 또한 “국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립대병원과 정부가 힘을 합쳐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.”라고 말하였다.

